



(사)한국포장학회는 지난해 11월, 김종경 수석부회장을 13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김종경 신임회장은 포장 관련 학과, 기관 등을 거쳐 현재 KCL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앞으로 학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김종경 신임회장으로부터 취임 소감을 비롯하여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편집자 주 —

Q. 한국포장학회 회장으로 선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내년이면 포장 업계에서 일을 한지 딱 30년이 된다.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해에 한국포장학회의 회장직을 맡게 되어 더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저를 학회 회장으로 뽑아준 것은 지금까지보다 더 학회에서 봉사를 하라는 의미로 알고, 임기동안 한국포장학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 먼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부산 해운대고등학교를 1987년도에 졸업하여 대구대학교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했다. 그곳에서 식품포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전공했다. 석사를 수료한 뒤, 1996년 3월 고국으로 되돌아와 한국포장시스템연구소라는 기관에서 선임연구원으로 물류포장을 2년간 연구했다. 이후 경북과학대학교와 용인송담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생활을 보냈다. 이후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2012년 산업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국가표준코디네이터로 3년간 근무하면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KCL)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Q. (사)한국포장학회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한국포장학회는 1994년 설립되어 포장기술의 학문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포장산업의 기술수준 제고를 위하여 선진포장기술 유입의 창구역할을 하는 학술단체이다. 회원은 170~200명 정도이며, 구성은 식품 포장 연구원과 교수 그리고 기업체 및 학생 등의 인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포장학회의 주요 업무를 간단히 말하자면, 먼저, 포장학회지(Korean Journal of Packaging Science & Technology)를 발간하는 것이다. 한국포장학회지는 유사 학회가 거의 없는 특수 분야로서 학술 가치가 뛰어나며, 포장과 관련된 분야에서 소재, 환경성, 시스템 등에 대한 학문적, 산업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학술지로서 1995 10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패키징 분야의 학문과 기술발전을 위하여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현재까지 Vol 28권을 발행했다.

그 다음은 포장 관련 전 분야에 걸쳐 학계·연구계·산업계에서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는 학술대회를 매년 춘계·하계에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기술동향 및 관련 정보를 연구하는 포장 종사자가 서로 상호교류를 할 수 기회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그 외에 학회 회원에 한하여, 포장소재, 물류포장, 배송포

장, 콜드체인 등 포장과학 및 기술의 확산과 전파에 도움이 되는 연구논문, 연구노트 등 자료를 접수하고 평가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Q. KCL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A. KCL은 국가의 전 산업 분야에 대한 시험인증과 연구 개발 등을 수행하여 국민 안전과 기술 발전에 기여하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설립은 1971년 한국수출잡화시험검사로 출발했다. 설립 초기는 건설, 생활, 환경 분야에 치중했으나, 2010년 한국전자시험연구원(KICM)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KEMTI)이 통합·출범하여 최근에는 (ESS), 신재생에너지, 모빌리티, 바이오 등 미래 신 성장 분야에서도 시험인증 인프라와 기술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KCL의 주요 업무는 먼저 KC, KS 등 법정 강제·임의 인증 및 검사, 조달물품 검사를 통해 국민 안전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R&D 연구개발을 하는 것으로 국토부나 산업부와 콜드체인 포장 용기 개발 및 포장자동설계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ISO 포장 및 물류 관련 표준 개발과 법정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 시험측정, 품질관리 분야의 교육을 통해 실무인력 양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Q. (사)한국포장학회의 최근 동향 및 역점 사업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은 학술지를 꾸준히 발표하는 것이다. 한국포장학회는 2021년에 한국연구재단에서 실시한 2021 학술지 계속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설립 25년 만에 격상됐다. 다만, 이를 유지하려면 매년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학회는 투고 논문의 질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또한, 식품 포장이나 소재에 국한되어 있었던 논문의



▲ 김종경 (사)한국포장학회 신임 회장은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공신력과 다양성이 존립하는 학술단체를 만들어 한국포장 학회와 대한민국 포장산업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그 외 임기 기간 동안에 한국포장학회가 30주년을 맞이한다. 이를 기념해 기념연감도 편찬하고, 기념행사를 열어 포장 관련 단체 및 기관장을 초대해 친목 도모 및 정보 교류에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30년 동안 포장 외 길만을 걸어 한국포장

범주를 포장기계, 포장디자인 등 그동안 제대로 논의된 바 없는 다양한 분야로 넓혀 학술지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두 번째는 학회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계와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회는 제휴 및 협력을 통해 포장 관련 기업과 공동 세미나 또는 용역사업 등을 전개하고, 학회가 보유한 인프라로 산학연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세 번째는 내년에 있을 학술대회를 준비하는 것이다. 춘계학술대회는 산업과 융합을 주제로 하여 산업계에 우수사례 등을 발표하고, 하계학술대회는 학술적인 내용에 중점을 둔 국제컨퍼런스를 제주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하계학술대회는 코로나19 등으로 포장 관련 최신 해외 정보를 제대로 접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해외 연사들을 여럿 초청할 예정이다. 누구든 참석하여 많은 정보를 얻어갔으면 한다.

학회 회장의 자리까지 올랐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임기로 있는 동안 다른 길을 내기 보다는 등재지를 유지하는 등 학술단체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는 데 주력할 생각이다.

그리고 저만의 생각일 수 있지만, 포장이 가장 창의적인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포장은 똑같은 것을 계속 만들 수 없다. 그것이 무엇이든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달라져야만 하고, 새로운 디자인이나 설계가 계속 나와 줘야만 한다.

이는 학회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따라서 회장으로서 앞서 말했듯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다른 산업과 협업하여 계속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포장과 결부시켜 한국포장학회가 대한민국 포장산업의 발전에 좀더 보탬이 되는 공신력과 다양성이 존립하는 학술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